



회암사지 산사음악회에서 초연된 '폐사지 보존과 사랑을 서원하는 노래' (작사 장용철·작곡 김희경) 가운데 '청산은 나를 보고'를 국악인 김성녀씨가 열창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 만월을 조명 삼아 절터를 무대삼아

문화복지연대(상임공동대표 김중엽)가 주최한 전국폐사지 투어콘서트의 첫 번째 무대 회암사지 산사음악회가 10월 16일 3500여 관객이 모인 가운데 양주 회암사지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영산재 시연으로 시작된 이날 공연은 오름민족음악관현악단의 연주, 국악인 김성녀·박애리·남상일, 소프라노 김양희, 바리톤 홍일, 가수 정태준 박은옥의 노래, 아산합석의 타악퍼포먼스, 해금 연주 손으로 진행됐다. 한편 위촉곡에서는 1폐사지 1지킴이의 첫 번째 양주 회암사지 지킴이로 방청석제(42)를 위촉했다. 폐사지 보존운동과 산사음악회 개최의 산파역을 한 문화복지연대 공동대표 장용철 사인이 이날 음악회를 리부했다.

## 문화복지연대 주최 폐사지투어 첫 번째 회암사지 산사음악회 3500여 관객 운집

### ■ 회암사지 산사음악회 리뷰

장용철

(윤이상평화재단 사무처장)



이번 회암사지 음악회의 의도는 폐사지에 대한 역사성을 일깨우는 것이었기에 '회암사지 가는 길' '용담화' '제행무상' 등 폐사지를 주제로 한 창작곡이 다수 선보였지만, 그로 인해 다소 전반부가 지루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문화복지연대가 문화 사각지대,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를 통한 '복지'를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사지 음악회는 처음부터 가능성을 내포한 참신한 기획일 수밖에 없었다.

회암사지는 인도 나란다대학 출신의 지공 스님이 창건하여, 지공, 무학 등 고려 말의 고승들이 주석했고, 태조 이성계가 출가하여 조선 최고의 국찰(國刹)로서 대접받던 거대한 가람이었다.

한 때 이 절에 주석했던 스님들이 3천여 명이나 되었다면,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중들은 모두 전생애 이 절에 인연을 맺었던 스님들이거나 신도들이었는지도 모른다. '많은 산사음악회를 다녔지만 아무것도 없는 폐사지에서 노래하기는 처음'이라는 국악인 남상일씨 말처럼 폐사지 음악회는 아무것도 없기에 조금만 준비를 해도 세간의 주목을 받는 매우 불교적인 새로운 문화상품일지도 모른다.

문화복지연대의 폐사지 투어콘서트는 이번 회암사지 음악회를 출발점으로 하여, 내년에는 여주 고당사지, 강화 선원사지 등을 찾아가길 계획이다. 제주도 범해사지에 이르기까지 폐사지 투어 콘서트가 회를 거듭하면, 이 땅의 많은 폐사지들이 연꽃의 향기를 피우리라 기대된다.

'당 빈 흥만'의 밤. 역사의 골짜기를 거스르는 제행무상의 선을. 가을 산과 사슴과 만삭의 만월(滿月)이 하나의 소품이 되어 조화를 이룬 천보산(天寶山)의 밤...

'폐사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문화복지연대가 진행한 전국 폐사지 투어 콘서트 첫 번째 음악회인 양주 회암사지 산사음악회가 대성황을 이루었다. 3천여 개의 촛불이 무너진 절터를 밝혔고, 가슴 뭉클한 신심의 열기가 싸늘한 가을밤의 공기를 갈랐다.

유령처럼 고만고만한 산사음악회가 전국 도처에서 난장을 펼치지만 폐사지 음악회는 그 발상 자체가 생동했다. 신도하나 없는 '잊혀진 가람', 마을버스 한대 접근하지 못하는 암곡의 절터에서 공중 화장실까지 만들어 가며 음악회를 연다는 것은 그 기획 자체가 무모하고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신심이 있으면 '가지 않는 길'도 길이 되고, 수미산 꼭대기라도 선산선녀가 모이는 법. 회암사지 음악회는 그런 차별성, 그런 욕심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회암사지 산사음악회에 참석한 내빈들. 앞줄 왼쪽부터 회장 장용철, 신계훈 의원, 정성호 의원,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스님, 장용철 윤이상 평화재단 사무처장.

## 가을밤 산사 재즈 선율에 취해



재즈 피아니스트 임학성씨가 수원포교당에서 열린 나혜석 추모음악회에서 연주하고 있다.

## 수원포교당, 나혜석 추모 음악회 열어 스리랑카 근로자 50여명 초청 성지순례등

만삭의 달이 부서져 지방세계를 비추는 가을밤.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사물에 흘렀다. 용주사 수원포교당(주지 성관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나혜석 추모음악회' 장에서였다.

10월 16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용주사 수원포교당 프락극락대원전 앞 특설무대에서 펼쳐진 이번 음악회는 재즈공연으로 꾸며졌다.

'인권'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취지에 걸맞게 수원 출신의 시인인 김우영씨가 자작시 '행정의 노래-외국인 근로자들에게'를 낭송하는 것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진행된 음악회에서는 한국 최고의 재즈연주자인 임학성씨의 재즈밴드가 '고엽' '아름다운 세상' '남은 먼 곳에' '그대 그리고 나' '카타리' 등 20여곡을 선사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5백여 불자들이 참석한 이날 음악회는 불교계에서는 다소 생소

한 재즈라는 신명나는 장르를 선보여 참석자들을 매료시켰다. 특히 마지막 노래가 끝나자 관람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앵콜'을 연발하며 임학성씨를 무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에 임학성씨는 나훈아씨의 노래인 '사랑'을 재즈로 편곡해 답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인숙(54·수원시 권선동)씨는 "보름달빛 아래서 분위기가 있는 사찰에서 재즈 음악을 듣게 돼 법문을 듣는 것만큼 너무 좋았다"며 "지역 문화 축제를 지역 사회가 주관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는 일은 지역 문화포교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 같다"고 즐거워했다.

한편 이날 음악회에 앞서 수원포교당은 스리랑카 외국인 근로자 50여명을 초청해 수원 화성순례와 온천관광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수원-김주일 기자**

## 문학관 열고 삶, 작품세계 조명

### 김달진문학제 11월 5일부터 자료사진展, 기념문집 발간

월(月下) 김달진 선생(1907~1989)의 삶과 문학세계를 조명할 '김달진문학관'이 개관한다. 시인이자 스님으로, 한학자이자 교사로 일생을 살아온 김달진. 그의 고향 진해시 웅동 소사리 마을에 생가와 이웃해 김달진문학관이 세워졌다. 11월 5일 김달진문학관 개관과 동시에 열리는 '제10회 김달진문학제'는 다양한 행사로 개관을 축하한다.

5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개관 기념식은 김달진이 시작으로 김달진문학상 율하지역문학상 시상식과 함께 '시와 해금의 어울림' 축하공연 등이 신명나게 펼쳐진다. '불교사상과 노장사상의 문화적 조화의 세계'를 주제로 한 문학심포지엄은 5일 오후 4시 김달진 생가 마당에서 열린다.

첫 특별전시회는 김달진문학제 10년 자료 사진전으로 막을 연다. 5일~12월 31일 특별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사진전에는 김달진문학제의 모든 역사가 담겨져 있다.

김달진문학상 역대수상시인과 율하지역문학상 수상 시인, 김달진 시인의 시화, 김달진 생가와 문학관을 대상으로 한 초등학생들의 그림·시화 등은 문학관과 생가 주변에 11월 30일까지 전시된다.

이외에 기념 문집 <경건한 정열>도 발간된다. **강지연 기자**

신비한 손

# 天一氣功

이재복 회장(독일 동서의학 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서양의학의 본 고장인 독일 동서의학병원에 초청되어 그곳환자들을 치료하여 의사들과 환자로 부터 "슈퍼"라는 최상의 찬사를 받고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정증을 획득하였습니다.(미국병원으로보급중)

## 天一氣功研究會는

13년전(1993년)설립되어 파워붕, 신선대 등을 전국선방의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보급하여 오고 있으며 수만명의 사용자 및 수련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해결이 어려운 질병은 기공 수련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천 일 기공 연구회

## 소백산수련원

수련문의전화 02)3436-3206~7(서울본회)

054)637-9810(경북영주수련원)

●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氣功指導師 과정(속성반) 3박4일코스

50기 - 10월 20일 오후2시 ~ 23일 12시  
51기 - 11월 24일 오후2시 ~ 27일 12시  
52기 - 12월 8일 오후2시 ~ 11일 12시

※ 매일 선착순 20명 마감

- ◆ 性命雙修(성명쌍수) -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것이 도와 건강에 이르는길 입니다.
  - ◆ 色心不二(색심불이) -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닌데 마음만 닦으면 몸은 언제 닦으시렵니까?
  - ◆ 몸이 마음을 담는 그릇(法器)인데 몸이 병들면 마음이 청정해질 수 있으나요
  - ◆ 골격이 틀어지고 숨줄이 막혀 있어서 앉아 있을수록 몸이 뒤틀리고 다리가 저려서 좌선을 할수가 없는데 어찌 도를 닦는다 하십니까?
  - ◆ 숨을 고르는 것과 만들어 쉬는 것이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인데 그 원리를 아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 세상에는 숨을 만들어 쉬면서 큰병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 가는 수행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 ◆ 여기 성명 쌍수와 숨을 올바르게 고르는 수행법으로 인연있는 불자와 스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 ※ 수련을 마친 스님들께서 비록 짧은 3박 4일이지만 평생에 소중한 인연 맺은 좋은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1 단계 수련 : 몸만들기 비결을 배우시면 질병에서 벗어나고 신도님들께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 ◆ 수련 2일째부터 양손에서 기를 발공하여 환자들의 막힌 경락을 소통하여 사기, 병기, 냉기, 탁기를 배출하여 건강한 양체의 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 ◆ 천도제를 많이 지내는 스님들 중 사기를 많이 받아서 병에 시달리거나 이유없이 몸이 아프고 몸이 냉하고 병마에 시달리는분은 수련기간중에 해답을 얻습니다.
- ◆ 기를 발공하면 곧바로 나쁜기운이 빠져나오고 약취가 진동을하고 찬바람이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나옵니다. 거기에 손을 대보면 손이 시리고 따갑고 저린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을 일으키는 원흉입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분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나 기치료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 두통, 오심, 구토, 뇌경통, 요통, 디스크, 구안와사, 신경통, 테니스엘보, 관절염(통) 등 통증 치료법을 배워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